

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보도자료

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공일자 | 2024. 4. 3.(수) | 사진·영상 유무 | 사진(○), ENG(×) |
| 보도일시 | 3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| | |
| 담당부서 | 경제산업국 소상공인과 | 담당자 | 이선영 사무관 (044-300-4121) |
| | | | 황시내 주무관 (044-300-4123) |

여민전 가맹점·공실상가 입점 소상공인 금융지원

- 세종시·하나은행·세종신용보증재단,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-
- 하나은행 7억 원 특별출연, 세종신보 105억 원까지 특별보증 -

세종특별자치시(시장 최민호)가 여민전 가맹점과 공실상가에 입점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시작한다.

시는 3일 하나은행, 세종신용보증재단과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1.75~2.0% 수준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은 7억 원의 특별출연과 금리 우대를 지원한다.

세종신용보증재단은 105억 원까지 특별보증 및 심사완화 등을 시행한다.

또 업체당 최대 2억 원 한도, 보증기간 5년 이내로 금리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. 신청은 이날부터 세종신용보증재단에서 가능하다.

지원대상은 세종시 관내 소상공인이며 1만 5,000개 여민전 가맹점과 61개 공실상가 입점 기업에 보증 한도 상향 등 우대가 적용된다.

이승원 경제부시장은 “이번 협약이 장기간 고금리·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”며 “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혜택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